원측의 사상적 전모를 엿볼 수 있는 기회

〈해심밀경소〉 제1서품, 제2승의제상품, 제3심의식상품 · 제4일체법상품 총3권

원측 지음 | 백진순 옮김 | 3권 합 7만원

신라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 주석서다. 해심밀경은 유가행파의 소의경전으로서 유식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교설들이 설해져 있다. 광본(廣本)과 약본(略本) 두 종류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책은 약본을 옮긴 것이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의 결과물 3권이다. 책 〈해심밀경소〉는 탄생 1400주년을 맞이한 신라 유식학의 한 축이었던 원측(圓測 · 613~696) 스님의 〈해심밀경소〉 총 8품 중 4품까지에 해당한다. 책은 현재 전해지는 원측의 저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작으로서, 신구 유식학을 섭렵했던 원측의 사상적 전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철학적 성과들을 담고 있다.

원측 스님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당으로 건너가 많은 유식학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찬술했고, 규기(632~682)와 더불어 법상종 양대 학파의 시조로 추앙받은 사상가였다.

원측 스님의 해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교하고 세분화된 과목표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

정교하고 세분화된 완성도 높은 주석

인용문 출전 일일이 대조 교감 거쳐

했다는 것이다. 경전 해석에서는 과목의 세부적 설계 자체가 그 주석가의 원전에 대한 독창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의 문구를 어떤 단위로 분절하는가에 따라 그 경문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측 스님의 과목 설계는 삼분과경(三分科經)의 학설에 따라 경문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원측 스님이 설계한 〈해심밀경소〉의 과목 표만 따로 재구성해 보면 다른 주석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교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그 과목들 간의 관계가 매우 정합적이고 체계적이다. 이 과목 표에 의거해서 경문들을 읽어 가면, 마치 하나의 경전이 본래부터 그렇게 정교한 체계와 구도에 따라 설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발간된 3권의 역주 작업에서는 모든 원문에 대한 철저한 교감과 상세한 역주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의가 크다. 더구나 모든 인용문들의 출전을 찾아 일일이 대조하고 전후 문맥 등을 살펴 비판적 교감을 거쳤으며, 또 품별 해제를 통해 각 품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철학적 주제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1서품은 경의 종체에 대한 논의 등과 '서품'의 경문 해석이다. 책에는 옮긴이가 '원측 사상의 백미 중의 하나'라고 일컫는 교체론이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다. 이 교체론은 '성전의 언어', 즉 '교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원측 스님이 소승과 대승의 다양한 교체론들을 어떤 원리로 회통시키고 종합해 가는지를 자세히 추적하는데, 원측 스님이 언어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또한 원측 스님의 상세한 해석들을 통해 정토에서 법을 설하고 듣는 하나의 사건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2 승의제상품'은 유가행자들이 관찰해야 할 경계 중에 첫 번째로 승의제(勝義諦)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이 품에서는 승의제, 즉 궁극적 진리라는 단일 주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네 번에 걸쳐 각기 다른 문답자가 등장하여 길고도 논증적인 설법을 펼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이역본들에서는 이 품을 네 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 품만 따로 별행시킨 경우도 있다. '이언(離言) · 무이(無二)' 등 승의제의 다섯 가지 상을 설하는데, 문장은 난해하지만 사실상 궁극적 진리는 '언설될 수 없다(不可言說)'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 이러한 궁극적 진리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 파악되지도 않고 또 언어의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한 될수록 많은 외적인 해석과 간접적 진술들을 택해야 한다. 원측 스님의 해석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대 · 소승의 중요한 학설들이 총망라되는데, 이를 통해 불가언설의 진리에 대해 불교 내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철학적 지성에 의해 정의된 개념과 범주를 통해 언어를 넘어서 있는 궁극적 진리의 가장 깊은 뜻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3 심의식상품과 제4 일체법상품은 심의식(深意識)의 비밀과 일체법상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품은 모두 유가행자들이 관찰해야 할 경계들에 해당한다. '심의식상품'은 진(眞) · 속(俗)의 경계 중에 속제를 설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승의제상품'과 한 짝을 이루고, '일체법상품'은 유성(有性) · 무성(無性)의 경계 중에 유성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뒤의 '무자성상품'과 한 짝을 이룬다. 심의식의 비밀이란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생을 받을 때 일체종자식의 수행하는 비밀스런 기능을 가리킨다. 원측 스님의 해석에서는 이 '식'을 새로운 육체를 출현시키고 증장시키는 내적 동인으로 간주했던 초기 유식학의 기본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원측 스님의 해석에 내제된 철학적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옮긴이의 해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옮긴이는 이 경에서 설한 일체종자식은 '업력의 담지자'에 대한 사유의 연속선상에서 도출된 것이고, 심의식의 비밀의 초점은 식과 몸의 비밀스런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떠나고, 보내고 깨달은 것들

오대산 가는 길
박용열 지음
아동문예 펴냄
9천원

탄허 스님을 모셨던 박용열 시인이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 영전에 올리는 시집이다.

시인은 한국전쟁을 겪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맸다. 한쪽 발은 절었고, 피까지 토하면서 그가 찾아간 곳은 오대산 월정사였다. 그리고 부처님 품에서 탄허 스님의 제자가 됐다. 옥수수, 감자와 쌀겨로도 두 끼니 밖에 먹지 못하는 배고픈 생활이었고 의복은 돌아가신 분의 옷을 얻어다 먹물을 들여 입었다. 스님이 역경한 〈기신론〉, 〈영가집〉, 〈육조단경〉, 〈노자〉, 〈도덕경〉, 〈남화경〉, 〈화엄경〉을 책으로 만들며 스님을 모셨다. 그렇게 흘러가던 세월 속에 고무신이 다 떨어져 도저히 신을 수가 없어 헌 신짝 벗어들고 "제자 고무신 하나 사주지 못하면서 무슨 도제 교육입니까?"며 은사한테 대들었다. 그 때 "야! 이 멍청아, 버리는 공부를 하려고 중이 되었으면 모든 것을 버리면 되지 않느냐."며 스승은 죽비를 들었다. 제자는 만행에서 돌아와 모자란 자신을 또 스승에게 떠넘기며 응석을 부렸다.

생활은 항상 서민같이 하되 생각만은 귀족같이 살아야 하며 중이 돼지같이 살이 찌면 정신적으로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선승은 안광이 빛나고 메마른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 훔쳐먹던 철없던 제자. 끝내 속세로 돌아온 제자는 높고 높은 스승 곁에 있었으면서도 열심히 배우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시를 썼다. 망나니 제자 어떻게 사나 궁금하여 들여다보시던 스승의 쓸쓸한 모습 떠올리며 시를 썼다.

오대산 가는 길

구름처럼 떠돌아다녀도
얻는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네.

오대산 가는 길 옆에
5백년 묵은 전나무들이 빽빽하여
대낮에도
어두움 침침
캄캄하구나.

찬바람 불고 서리 오기 전에
어디로 갈까
걸망 메고 망설이다가

가부좌 틀어 눈 감으니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내 어찌하여 그렇게도 몰랐을까.

떠나고, 보내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시가 됐다. 부끄러운 제자가 떠나간 스승께 올리는 음성공양이다.

박재완 기자

아흔의 노모는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

나의 선지식 엄마의 사계절

도정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원

정념선원 도정 원장의 불교 수행기이자, 구순의 노모를 돌아가실 때(93세)까지 정성껏 모신 시봉기이다.

책은 저자가 불교와 처음 만나게 된 인연담을 비롯해 불교에 몰입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겪으며 깨달았던 신행담과 수행담이 한 축을 이루고, 역시 저자의 어머니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아흔의 노모가 불교에 젖어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자의 모습들이 또 한 축을 이룬다.

저자는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참선정진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한 후 10여 년간 참선과 염불수행에 전념해왔다. 2010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흔의 노모를 3년 동안 모시고 정진했으며, 2011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정념선원을 설립해 재가 수행공동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학창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간 것이 인연이 되었고, 그렇게 만난 부처님 법은 그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놓는다.

처음 모시게 된 아흔의 노모는 몇 달간 금강경을 수시로 읽으시고 감탄했다. 이것이 부처님이 해놓은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 엄마" 하면 "한문에 의미가 있으니 알지." 그러면서 "수보리 제자 우리 위해 질문이 많구나!" 한다. 늘 힘이 되어주신 엄마. 2년간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 49일 여행, 지장본원경, 하루도 안 보신 적 없으신 엄마. 불교에 빠진 노모는 식사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손에서 경전을 놓지 않았다. 아흔의 엄마는 저자에게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이었다. 92세의 노모는 치매와 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했지만 막내아들(저자)의 집으로 옮기고 난 후부터는 화학성분 약을 모두 버렸다. 아들은 노모와 놀아주고, 들어주고 드실 수 있게 음식 해드리고, 목욕 자주 시켜드리고 스킨쉽 해드렸다.

집집마다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모시는 문제로,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효'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시대에 저자의 애틋한 사모곡은 그 가치와 의미를 넓히고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0 ~ 7/1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4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9	슬프고 웃긴 사진관	아잔 브람	김영사
10	벽오동 (백봉 김기추 선시집)	김기추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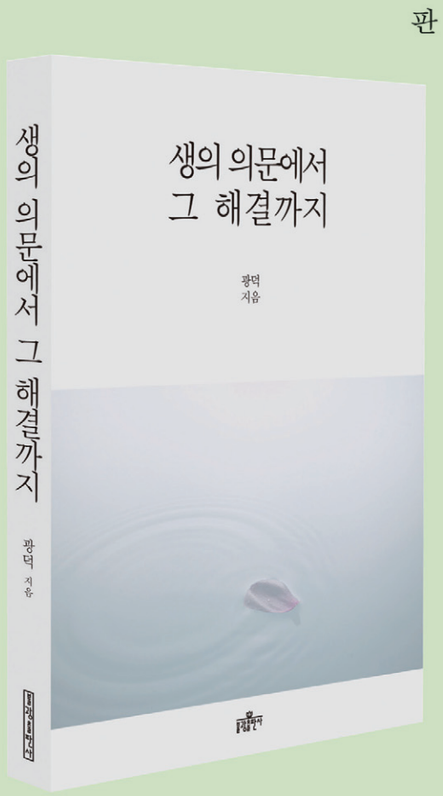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개정판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광덕 지음

352쪽 | 12,000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금하광덕 스님의 책들

- 경전 강의서
  반야심경 강의 | 보현행원품 강의
- 경전 번역서
  금강반야바라밀경 | 천수관음경 | 부모은중경·관음경
  지장경 |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 선어록 번역서
  육조단경 | 선관책진 | 무문관
- 법어집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구도 문답집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 삶의 빛을 찾아서
- 삶의 지혜를 여는 칼럼집
  행복의 법칙 | 빛의 목소리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봄·여름·가을·겨울(전 4권) |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 불교 의식집
  우리말 법회요전 | 현화의식문 | 불자 수행일과요전 | 지장기도집
  지송 금강경 | 지송 보현행원품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